

# YTN, 7월부터 'HD 방송'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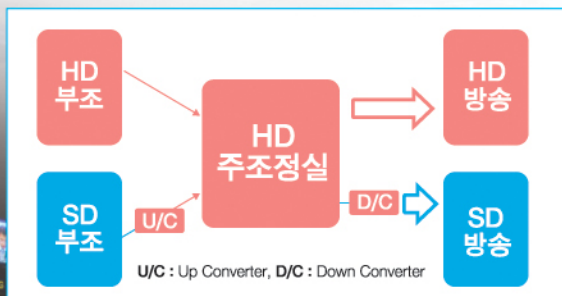
## 최상의 화질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한국최초의 HD뉴스채널 YTN! 빠르고 정확한 뉴스, 7월 1일부터 HD방송으로 보다 선명하고 생생한 고품질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SD시스템으로 1995년 개국과 2004년 사옥이전을 했던 YTN은 주조정실과 부조정실을 2009년 7월 1일부터 HD로 전환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HD방송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HD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도입배경**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며 SO도 2011년까지 70% HD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도 시청자와 SO HD방송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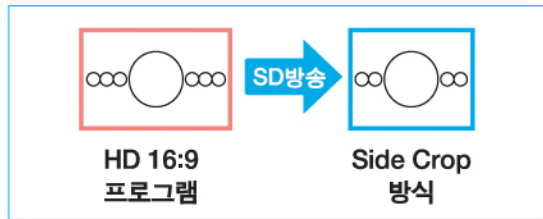
**구축과정** 2008년부터 장비 기술검토와 도면설계를 시작해 2009년 5월 13일 착공, 6월 30일 준공 됐다. 주조정실 구축을 위해 24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조기능을 3부조, 신호분배실로 2차레 이동했으며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동시에 부조정실과 HD환경에 맞는 스튜디오 세트 공사도 진행됐다.

**시스템 개요** 주조정실과 부조정실 1개가 HD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주조정실은 HD와 SD방송을 동시에 송출한다. 이를 위해 SD와 HD신호가 Up/Down 포맷 변환을 하게 되며 화면구성 방식은 용도에 맞게 설정됐다. SD방송 송출을 위한 Down Converter는 자동 제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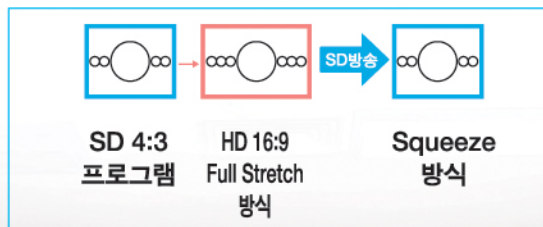


**HD, SD방송 동시 송출** SO 방송형식은 HD와 SD로 나뉘어져 있어, 이에 맞게 YTN 송출도 HD와 SD로 동시에 송출한다. 부조정실의 SD방송을 어떻게 HD방송으로 만들어 주조정실에 보내는가, 또 주조정실의 HD방송을 어떻게 SD방송으로 만들어 송출하는가를 살펴본다. 이 방법들은 완전 HD방송이 실시되는 2012년까지 YTN에서 사용될 방법이다.

**1 HD프로그램** SD방송 송출은 HD방송 신호의 좌우를 잘라내는 Side Crop방식으로 Down Converter한다. 이 방식은 화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왜곡이 없다.



**2 SD프로그램** SD방송 신호를 16:9로 넓히는 Full Stretch방식을 사용한다. 화면 좌우가 약간 늘어난다. 다시 SD방송으로 송출할 때는 Squeeze방식으로 줄인다.



**스튜디오 세트** HD부조정실 전환일정에 맞춰 스튜디오 세트도 HD환경으로 구축됐다. 기존 대담 위주의 세트에서

종합뉴스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디자인에 역점을 뒀다. 특징으로는 200인치급 와이드 리어스크린을 채택했다. 화면을 이어 붙이지 않은 원판으로 되어있어 색감 차이와 단절감이 없고 역동적인 화면전달이 가능하다.

스튜디오 세트 제작업체 선정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공정성과 철저한 검증을 확보했다. 제작업체 4곳의 시안으로 TF팀의 철저한 평가가 이뤄졌고, 6월 3일~4일 이틀에 걸쳐 사원선호도 조사도 실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스튜디오 세트 제작 업체가 선정됐다.

**기대효과** 선명한 HD뉴스로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SD의 40만 화소보다 4배 이상인 200만 화소의 고화질로 제공되어 생생한 현장 화면을 안방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정부시책과 SO HD 전환 플랫폼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여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가 가능해졌다. 내부적으로는 SD 노후장비 교체로 방송시스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으며 시청률 향상과 광고효과를 기대된다.

신설된 HD시스템과 구축예정인 뉴스 룸, 디지털M/W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위상과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HD방송 시스템 구축에 디지털추진위원회, HD방송포맷 TF, 스튜디오 세트 TF와 주관부서인 인프라팀, 장비관리팀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다.

정경남 차장대우 인프라팀

- ▶ SD(Standard Definition, 표준해상도) 720×480의 35만 화소수로 주로 4:3 화면비율을 사용한다.
- ▶ HD(High Definition, 고해상도) 1920×1080의 200만 화소수로 16:9의 화면비율이며 SD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화질차이가 난다.



신호분배실과 복도를 이용해 임시로 만든 주조정실(왼쪽), HD주조정실을 새로 만들면서 24시간 끊임없는 방송 송출을 위해 2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 상암동 신사옥 설계업체 최종 선정 작업 돌입

YTN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들어설 신사옥 설계업체 최종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DMC 시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YTN이 지난 4월 3일부터 공모에 들어간 설계업체 경쟁에는 컨소시엄 형태 등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들 업체로부터 11개 작품을 접수받아 엄정한 사내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세편(사진)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설계 작품 선정에는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작 3편에 대한 선호도 투표까지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임원 심사 등을 거쳐 한 개 업체가 최종 낙점된다. 총사업비 1,697억 원이 소요되는 상암동 YTN 신사옥은 부지 4,973m<sup>2</sup>(1,504평)에 연면적 60,000m<sup>2</sup>(18,150평)로 내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된다.

## YTN 노사 공정 방송 협약 서명

YTN 노사가 6월 10일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협약은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공적 기능과 방송의 공정성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과 함께 △사장의 공정정보 준수·공표 의무 △정례회의 2회·임시회의 3회 미개최시 보도국장 신임투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측 대표인 공정방송추진위 간사의 경우 상근직으로 전환해 공정방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 게시판

**포 상** <특종상 금상> 이병식 차장대우 경제부: '대한항공 화물기 통신 두절, 독일 전투기 출격 보도' <특종상 은상> 이정미 사회부, 이승환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강남 200억대 자산가 파산' 보도 / 박조은 사회부 박조은, 이상은 영상취재팀: '월미도 모노레일 부실공사 의혹' 보도 <특종상 동상> 김승재 차장대우·장기영 경제부, 김종호·지대웅 차장대우 부산지국: '부산 노래주점 불, 8명 사망' 보도 / 김혜은 사회부: '보험업 직원이 고객 보험금 가로챈 사건' 보도 / 김도원 사회부: '검찰, 상이군경회 위탁사 전격 압수수색' 보도 / 장아영 사회부, 강영관 영상취재팀: '외제차량용 초동생이 석달동안 몰래 운전 사실' 보도 <사이언스TV 우수프로그램상> ● 자체 제작 - 지정윤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신기술어벤저츠 보물섬' 제작 ● 외부제작 - 프리덕션 미디어: '사랑'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 제작 <공로상> 권오진 홍보팀장: YTN 버스 '안내 방송실시' 공로 / 이철규 타워 운영팀: 서울타워 석면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공로 / 김규남·김주희 마케팅기획팀: 양돈협회 캠페인광고 유치 공로 / 김지연 영상편집팀: 2008년 '국내 10대 뉴스' 편집 공로 / 김태동 차장 기술기획팀: UPS Overhaul, 배터리 무상교체로 경비절감 공로 / 오민철·정경남·이경준 차장대우 인프라팀: 지상파 DMB 소출력M/W 공동 시설구축 공로 <표창장> 남세환 사업2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회사에 기여 5.8

**입 사** 정재기 제작팀 5.28 / 이성우 청구지국 6.22

**승 진** <차장대우(5급급)> 이우규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정미순 총무팀, 김호석 마케팅기획팀, 신성원 편성운영팀, 황보연 정치부, 장기영 경제부, 배성준·임승환·임종주 사회부, 권영희 사회부2, 지대웅 부산지국, 이양희·한민정 문화과학부, 김기봉·이경아·이승은 국제부, 강태욱 뉴스6팀, 이규일 해외방송팀, 김진아·김희준·정애숙·함형건 앵커팀, 기내경·김윤희·최재욱 그래픽팀, 최계영 영상기획팀, 강근배·김윤석·김학욱·노옥상·양준모·오유철·원종호·이승환·정철우·최영욱 영상취재팀, 강재환·박민양·성도현 영상편집팀, 정경남 인프라팀, 양태열·이기래 송출기술팀, 송기섭·이상경·이상천·이영재·이정우·전재성·조민철·조상현·최광희 제작기술팀, 권혁근·김용영 중계팀, 유투권·장민수 (주)YTN라디오편

<차장대우(5급급)> 최종인 마케팅3팀, 김성환 국제부, 김태진·박순표 정치부, 한상욱 경제부, 나경환·최용호·김태형 영상취재팀, 권한주·박관우·한언심 영상편집팀, 이경준 인프라팀, 김영호 송출기술팀, 홍덕태·박경태 중계팀, 박진언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4.30

**전 보** 김희준 차장대우 사회부, 박영진 뉴스4팀, 최영주·이여진 앵커팀 6.18 / 유투권 차장대우 보도제작팀, 김선희 차장대우 경제부 6.5 / 김승재 차장대우 베이징특파원 준비 5.27 / 남상규 부국장 영상기획팀, 박상남 뉴스5팀장, 박근표 부장대우 디지털뉴스팀, 홍선기 경제부, 김재형 스포츠부, 이선아·방병삼 차장대우, 황보선 차장대우 뉴스1팀, 김정현 뉴스2팀, 임수근 차장대우, 김경아 차장대우, 윤재희 뉴스3팀, 임상호 차장대우, 이여진 뉴스4팀, 강태욱 차장대우, 김선중·전준형 뉴스5팀, 김현철 차장대우 기술기획팀, 강희택 차장대우 인프라팀, 이현직 차장대우, 장승욱 차장대우, 조주현 차장대우 송출기술팀, 이병문 차장대우, 오종근·박종대 차장대우, 민병오 차장대우 제작기술팀, 이광희 차장대우, 이상경 차장대우, 임준석 차장대우 중계팀, 정원태 차장대우 정비관리팀, 송병준 디지털 기획팀 5.12



## YTN -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회 청소년영어토론대회 공동주최 MOU체결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6월 25일 「제1회 청소년 영어토론대회(The 1st Youth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의 공동 주최 의향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YTN 구본홍 사장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은 의향서를 체결하며 향후 대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

제1회 영어토론대회는 오는 9월12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국어대학교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된다



## YTN 라디오 제 1기 청취자위원회 출범!

청취자의 권익보호와 방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 1기 YTN 청취자 위원회가 2009년 6월 24일 뜻을 올렸다. 방송계, 학계, 경제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청취자를 대표하는 10명의 청취자 위원들은 24일 1차 위원회를 열어 날카롭고 따뜻한 비평을 통해 청취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YTN 라디오의 발전을 앞당기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1차 위원회에서는 한중광 전국재해구호협회 상임 이사를 위원장으로,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매일 1차례 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주정민 전남대 교수, 이나미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 한진만강원대 교수,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총장, 강갑술 YTN라디오 상무, 김용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한중광 위원장, 구본홍 YTN사장, 강경희 부위원장, 김동건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오혜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장



내 속의 재능을 끌어내어 준 YTN

# “기자가 아니면 당신은 뭐가요”



YTN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YTN인터내셔널이 출범하면서부터다. 뉴질랜드에서 한인방송을 하고 있던 입장에서 YTN과의 인연은 아주 특별한 기회였다.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방송을 하던 터라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였다.

오디오가 중심이자 전부인 라디오에서 영상취재라는 새 분야를 개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정용 캠코더에 노래방 마이크는 영락없는 학교 방송반 그림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도심에서 스탠드 업을 한다는 것이 꺼려지기도 했다. 직업기자에 비해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얼굴이 붉어진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열정에 대한 대가였는지 그 해 12월에는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를 인터뷰 하는 행운도 있었다.

제대로 된 중앙언론의 특파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보통 우리들을 기자로 본다. 방송 밖의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취재집단을 그냥 기자로 보기일수다. “우리는 기자가 아닙니다”라고 못을 박아두고 시작하는 취재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기자가 아니면 당신은 뭐가요”라는 취재원들의 질문은 아마 연합뉴스에서 오셨다고요. 라는 질문다음으로 가장 많이들은 말 같다. 이렇게 말문이 열리면 연합뉴스와 YTN의 관계에서부터 남산

타워,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한국의 방송환경, 지상파 라디오를 하는 YTN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어느덧 기자나 기자가 아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진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기자라면 YTN은 손해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보도국 기자라면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까지 YTN을 한참 소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YTN인터내셔널 출범이 올해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YTN의 보도영상이 계기가 되어 그 동안 다양한 분야의 한국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한국PD연합회 정회원 PD로 YTN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송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제작한다. YTN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발전된 모습 대신 가정용 캠코더로 가족을 찍어 주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취미에서 내속의 재능을 끌어내어 준 YTN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박범호 글로벌코리아 뉴질랜드 리포터

## 2009 KCTA 디지털 케이블 쇼

# 디지털, IPTV 등 굼직한 이슈가 있는 디지털 케이블 쇼

방송, 통신, 디지털, HD....이게 뭐지? 많이 들어본 거 같긴 한데 나에게는 별로 피부에는 와 닿지 않았던 단어들. 방송이라 함은 내가 일하고 있는 YTN과 관련된 거 같고, 통신은 아마 내가 쓰는 휴대폰 회사? 그나마 HD는 어느 CF에서 들은 거 같고... ㅏㅏ

그런데 이 생소한 단어들이 매체협력팀에서 일한 5개월 남짓 동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넘게 접하는 그런 가장 친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바로 이것들은 내가 5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YTN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었던 것이다.

처음 참석한 KCTA 케이블 쇼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케이블 업계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특히 올해에는 IPTV, 디지털로의 전환 등 굼직굼직한 이슈들 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2009 KCTA 디지털 케이블 쇼의 화두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듯하다. 첫째는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다. YTN도 이제 7월 1일부터 HD방송을 시작하며 관련업계에서도 방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둘째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중요성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진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로 나아가는데 케이블TV가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IPTV 등 다양한 신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질 높은 고급의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YTN은 그동안 구축해놓은 채널브랜드자산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강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케이블TV가 방송통신융합의 선도이다.

옛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새롭고 생소하여 다시 신입사원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된 나로서는 선무당이 되지 않을까란 걱정부터 앞서지만, 또 ‘서당개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 조상님이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내년 KCTA 행사에 참석할 때쯤이면 나도 풍월을 읊을 수 있지 않을까란 자그마한 희망을 가져본다. 덧붙여 이번 KCTA 행사에서는 대전지국장님을 비롯한 선배들이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 ‘역시나 이게 내가 사랑하는 YTN이었어’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신 따뜻한 환대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김솔희 매체협력팀





왼쪽부터 문한수, 김경록, 이천재, 이승안, 김범환, 이인배 지국장

빛고를 광주지국의 역사

# 물 먹는 하마에서 빛나는 북두칠성으로

허름한 창고에서 봄비는 신도심으로

지난 1995년 2월 말, 시커먼 남자들이 빛고를 광주로 가고 있었다. 송형일(현 연합뉴스), 홍성혁, 김범환, 김윤석 등! 당시 광주는 건설을 주로 하던 지역 중견 업체 덕산그룹의 부도로 경제 분야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었다. 부도 여파로 인한 서민 등의 피해가 연일 기사 머리를 장식했기 때문에 방송 시작 전에 다른 지역 팀보다 서둘러 이른바 임장 취재에 들어간 것이었다. 하지만 사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결국 등지를 뜬 곳이 SO건물이었는데 그 곳은 원래 창고로 쓰고 있었다. 들어 있던 물건을 치우고 집기를 놓는 등 모양은 갖춰졌지만 그림 송출은 인간생심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취재차량이 가는 곳이 광주공항과 광천버스터미널, 편집한 리포트 테이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지역에서 올라 온 리포트 테이프는 김포공항에서 오토바이가 수송동 사육으로 실어 날렸었다. 초창기에 지역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만 시작한 것이다. 지역에 땅이 제대로 깔려 전남 지역에서도 YTN을 보기까지는 3년이 넘게 걸렸다. 실제로 작고하신 선친께서 전남 장흥에서 채널 24 YTN을 통해 아들을 보신 것이 99년부터였다. 그러다가 금융기관 들어온다고 해서 같은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한 번 이사도 해야 했다.

지금은?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상무신도심 행정타운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광주광역시청이 바로 보이고 부근에 한국방송도 있어 취재와 그림 풀 등에서 최고다. 사통팔달의 요지에 있어 출장을 갈 때 접근성도 그만이다. 면적도 옛날 사무실보다 3배 정도 늘었다.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돼 조금 추운 것이 문제이지만 꿈이 이뤄졌다고나 할까!

축구팀에서 농구팀으로

광주지국은 지국장인 없는 상태로 있다가 개국한 지 2년여 만에 지국장을 맞았다. 이인배 당시 팀장, 송형일, 홍성혁, 김범환(취재), 김윤석, 이종석(촬영), 문한수, 문경환(기술), 이성환, 이상묵(운전), 그리고 김금심(사무보조) 이렇게 11명의 인력구조가 완성됐다. 지금 생각하면 식구가 참 많았다. 그래서 저녁에 밥을 한 번 먹으려고 해도 메뉴 고르느라 신경을 꽤나 썼던 기억이

새롭다. 재미도 있었다. 광주가 처음인데다 총각이었던 홍성혁 씨와 김윤석씨 덕분이었다. 당시 김윤석 씨는 예비 배우자가 있었지만 외로운 총각 홍성혁 씨는 참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밤이면 갈 데가 없다 보니 이런 저런 에피소드(?)를 마구 만들어냈다. 그래도 전주가 고향인 홍성혁 씨는 결국 광주의 처자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광주가 제2의 고향이 됐을 것이다. 운전 보직자가 몇 번 바뀌었지만 11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다가 송형일 기사가 연합뉴스로 복귀하고 외환 위기 겪으면서 퇴사와 구조조정으로 이인배, 김범환, 김경록(제주에서 전입), 문한수, 이천재(운전) 이렇게 5명만 남게됐다. 나중에 촬영보조 보직이 생겨 지금은 이승안 씨까지 합쳐 모두 6명이 오순도순 일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특정지역 출신이 직원의 절반인 관계로 그 쪽 기사 비중이 유난히 많다는 느낌도 든다는 것이다. (이 글 보시고 광주지국 아이템 모니터 잘 해서 특정지역을 맞으면 선물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특산품으로!)

물먹는 하마에서 빛나는 국자로

행정기관과 경찰서를 비롯해 거의 모든 출입처에서 YTN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취재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아무리 설명해도 TV에 나오질 않으니 신뢰를 주지 않아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유일하게 먹히는 곳이 경찰서였는데 이는 당시 각 지방청 별로 YTN 출연 전남 경찰관을 지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지방청 홍보방송을 하게 한 회사의 아이디어 덕분이었다. 그 경찰서에도 출입을 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어떤 광역 자치단체는 지국장인 온 뒤에야 출입이 허가되기도 했다. 그 때 절실히 느낀 게 신생 언론사의 설움이고 YTN의 브랜드 가치였다.

지금은 먼저 알아보지만 한참 회사 설명을 하다보면 맥이 빠졌던 기억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청 상황실에서 가끔 열린 소주 파티, 밤 12시 다 돼서 수육에 소주 들고 가서 술 꽤나 먹었다. 하루에 3번 얼굴 보이고 6번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큰 사건 사고가 나면 상황실에서 때때로 당시에 있던 관할 경찰서 고유 경비 대표

번호를 찍어 줘 기사를 연합통신보다 먼저 쓰게 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 갔었다. 연합통신에서 3년차 기자가 오긴 했지만 지역 기반이 없었던 만큼 당시에는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은 물론 현장에 가면 YTN을 외쳐대고 취재요청도 먼저 오니 격세지감이다.

그 동안 광주지국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기사도 발굴해 썼다. 보성 70대 어민 연쇄살인, 모녀 납치 감금 몸값 4억 5천만 원 강취, 강화도 탈취 총기 발견, 검찰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공사 뇌물 은폐, 교도소 안 대학 비리 등등. 광주지국 식구들이 다함께 애쓴 결과로 한국기자상과 변덕수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두 차례, 사내 다수 특종상 등 상복도 따랐다. 물 먹는 하마에서 빛나는 북두칠성, 국자(scoop)가 된 것이다.

남약지사 시대를 기대하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와 전남지역도 변화가 많다. 세계박람회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여수, 제철소의 광양, 생태도시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서남권도 전남도청의 무안 남약신도시 이전으로 유관 기관 30여 곳이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이고 조선업 활성화, 서남해안개발 프로젝트로 행정적, 경제적 기사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금도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이 있지만 도로 여건이 좋아져 취재하기는 많이 편해졌다. SO와의 연계도 강화됐고 소방서 화면이나 제보영상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폐쇄와 문제도 있다. 최근 어떤 자치단체장을 인터뷰했는데 실무자가 전날 모 SO에서 YTN에 낸다며 인터뷰해 갔는데 또 왔다고 물어 황당했었다. 이슈로까지 선정된 그 아이템 관련 지자체장의 인터뷰가 담긴 SO의 제작물은 물론 보지 못했다. 또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멀어지는 게 취재원들이다. 그래서 고육책으로 전남도청은 매주 월요일 취재가 있건 없건 무조건 한 번씩 다녀오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광주지국은 오디오맨 빼면 평균 나이가 46.6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력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남권에도 취재팀을 뒤야한다는 게 광주지국의 바람이다.

김범환 차장대우 광주지국



YTN FM 아나운서 ... 김.행.은!

#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울리는 무색무취의 물 같은 아나운서

## 입사한 지 이제 일 년이 지났네요. 요즘 어떠세요?

2008년 4월 30일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송을 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났네요. 24시간 라디오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께 제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개국 때에 비해 요즘 YTN라디오를 듣는 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비록 새벽과 심야를 넘나드는 수면불규칙 근무로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근무 특성상 밥시간에 밥을 제 때에 먹지 못해 식탐이 늘긴 했지만 ^^;;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우리 라디오 94.5MHz를 듣는 기사 분이 계시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새벽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지요. '강성욱의 출발새아침', '뉴스전망대'의 뉴스를 하고요. 10시대 뉴스. 그리고 아나운서 제작 프로그램인 '톡톡! 뉴스와 상식'을 맡고 있어요. 뉴스에 등장하는 시사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그날 이슈가 되는 아이টে임을 찾고, 또 그것을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청취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보니 저희에게도 공부가 많이 되는 프로그램 이예요. 아나운서들이 가끔 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헌데 이 사보가 나갈 때쯤이면 오후 2시대 뉴스와 저녁종합뉴스 그 외 수중계를 하고 있겠군요. 저희가 두 달씩 근무가 바뀌거든요.

## 방송 중 아찔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제가 웃음이나 눈물을 잘 참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독립영화 퐁파리가 우리나라에서의 흥행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뉴스를 전하는데, 진지한 목소리로 '퐁파리는' 하다 보니 예독할 때부터 자꾸 웃음이 나려더군요. 그래서 웃음을 참으려고 손을 꼬집으며 뉴스를 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까봐 많이도 떨면서 또 목소리는 약간의 경련이 일면서 뉴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목을 위해서 자신에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바퀴달린 것들에 약해서 자전거조차 못 타거든요.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숨쉬기 운동만 꾸준히 하는 편이예요. 대신 잘 자고 잘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대학 때 리포터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어서 보는 사람에게 먹고픈 충동을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하하... 목 관리는 무언가를 목에 감고 자구요. 차나 물과는 늘 함께 하구요. 특히 제가 새벽에 목소리가 많이 잠기는 편이라서 목을 충분히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샤워하면서 노래도 불러 되도록 일찍



1983.10.23 올해 스물일곱 살인 부산 출신 아가씨. 2녀 1남 중 장녀. 평범하지 않은 이름 때문에 자기 소개할 때 꼭 이 말을 덧붙이곤 한다. 은행 거꾸로... 행.은.이요.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에서 '궁중장식화' 세부 전공. 4년 동안 우리 문화를 접해서 인지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며, 대학 시절 방송국에서 활동하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다. 2005년 마산MBC 공채 리포터로 활동. 2006년 대전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라디오 김준모 김행은의 특급작전 등 진행. 2008년 YTN 라디오 아나운서로 입사. 동기아나운서들 중 가장 어린 막내아나운서.

일어나서 맑은 목소리를 내려 해요. 술을 마시면 목이 건조해져서 방송을 하며 주량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 아나운서 하기 잘했다 싶은 순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송국을 보면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고 중계차를 보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학창시절 학교나 근처에 취재라도 오면 카메라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아나운서가 되기도 전에 3번이나 뉴스에 얼굴이 찍혀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하하하 쓰고 보니 부끄럽네요.. 대전MBC도 그랬고 YTN라디오도 그렇고 방송국에 들어설 때마다 전 아나운서 하길 잘했다, 감사하다고 느껴요.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리고 누군가 제 방송을 듣고 해주는 말 한마디나 반응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소중한 사람들... 모두 방송을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참 고맙고, 제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죠.

## 남자친구는 있어요? 이상형은?

지금은 없어요. 이상형은 자상하고 성격 좋고 유머러스한 사람.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 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다른 여자들한테는 도도하고 저한테만 귀엽고 애교 많은 남자 스타일? 호호... 아, 그리고 목소리 좋은 남자!^^

## 아나운서 외에 관심 있는 분야, 아나운서가 아니면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팔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그려 팔거나 옷을 만들어 팔거나. ^^ 학부 때 알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도자, 한복디자인, 천연염색 그리고 동양화 중에서 뭔가 하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잘 하진 못해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빨리 포기했어요.

##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맡고 싶은 프로그램도 많을 것 같은데..

면접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무색무취의 물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도 그 프로그램에 어울리게 변신 가능한 아나운서요. 원래 긴장감 있고 변화가 있는 방송들을 좋아해서 그러한 것들에 매력을 느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직 여기서는 10%밖에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보여드린 곳보다 아직 보여 드릴 것이 더 많은 곳이기에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기에 거는 기대도 큼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YTN라디오도 그리고 저도 더욱더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YTN FM 파이팅!!!

김행은 YTN라디오 아나운서



쉽고, 재미있게!

# 과학의 숲에서 만나는 과학향기



일요일 낮 12시 30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과학향기 생활 속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와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또, 과학이 가진 신기한 비밀을 하나둘씩 파헤쳐 본다.

## 우리 생활 속에 스며있는 과학 이야기

현대 사회는 과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과학이 중요시 되고 있고, 우리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 모든 물건들이 다 과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닐까? 이처럼 과학은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런 과학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주는 과학 프로그램이 있다. 사이언스TV 수요일 오전 10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과학매거진, <과학향기> 이제 과학 속에 담긴 신기한 비밀이 하나둘씩 공개된다. 다양한 정보와 재미로 무장한 <과학향기>는 과학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본다! 과학 원리와 상식, 그리고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과학 원리들을 섹션을 나누어 흥미롭게 소개하는 신 개념 에듀테인먼트!

## 딱딱함을 벗어버리고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다!

과학의 향기를 만나게 되면 생활이 즐겁다! 다양한 과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을 재미있는 에피소드 통해 과학원리를 접근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기한 과학실험까지! 시청자들에게 전반적인 과학지식을 전파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과학을 실감하게 하는데, <과학향기>의 목표가 있다.

## 과학 대중화를 향한 작은 몸짓

<과학향기>와 함께 하는 순간, 과학은.... 즐겁고 의미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학 전문방송 사이언스 TV의 과학매거진, <과학향기>는 일반인에게 과학을 보다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과학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다양한 코너로 오감만족 실현!

**코너 1 -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과학 상식!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과학이슈를 선정해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학적인 호기심을 주제로 그 속에 담긴 과학 원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코너! 생활 속에서 만나는 친근한 과학을 통해 과학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코너 2 - 웃다가 쓰러질 과학** 황당한 호기심에도 과학은 숨어있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과학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경험과 일상에서 묻어나는 유쾌한 에피소드 속에서 배우는 놀라운 과학원리! 기상천외한 유머 속에 과학이 들어있다! 황당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배꼽 빠지게 웃다 보면, 어느새 과학은 이미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있다.

**코너 3 - 과학아 놀자 ~** 교과서로만 배웠던 과학실험! 이제 집에서 직접 한다? 과학적 원리를 주입식이 아닌, 생생한 실험을 통해 배우는 시간! 실험도 놀이처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고 재미있는 실험은 과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코너 4 - 과학 Q&A 베스트** 짧지만 알차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이재혁 PD

**과학향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생활 속에 스며있는 과학 원리를 익히는 교육·과학 전문지식 함양 프로그램!

**올해 3월 개편을 통해 첫인사를 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3월 25일 첫 방송이 나간 <과학향기>는 방영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4월 사이언스 홈페이지 최다 히트수를 기록하여 (자체·외주 포함) 144,288 페이지뷰(PV)를 기록하였고, YTN과 YTN DMB등에 편성되어 시청자들의 인방을 찾아 가고 있다.

## 오감만족! (五感滿足) 과학향기만의 매력은?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험을 통해 손으로 직접 체험하고 만들면서 배우는 과학 원리! 과학 속에 숨어 있는 비밀들과 원리들이 오감만족을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 시켜 줄 것이다.

## 전문적인 과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지?

생활 속에 이용할 수 있는 상식들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더욱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간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웹진, '과학향기'의 다양한 주제 중에 시의성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 영상화하여 시청자들에게 전해준다. 일상 속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재연하여 시청자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관심을 갖게 한다. 또 생생한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여주기 위해 출연교사를 비롯한 현장 과학교사들의 전문에 귀를 기울인다.

## 과학향기의 최종 목표는?

당근 지구 정복!! 시청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과학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영상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영상교육 콘텐츠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과학향기>가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유용한 '과학교육 가이드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익선 MC

**<과학향기>를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  
<과학향기>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스스로 즐겁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나 보여드리는 사람이 즐겁다면, 보는 분들도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에 더 신이 난다.

## 프로그램의 장점은?

일단 짧은 시간에 담는 내용이 풍부하다. 코너가 다양하고, 그래서 볼거리가 많다는 점! 우리 주변에 다양한 과학정보를 새롭게 접할 수 있고, 무심코 웃으며 지나쳤던 일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배워두면 좋을 실험도 소개해 준다. 여기에 짧지만 알찬 Q&A 등 놓칠 게 없는 30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뿐인가. 마지막에는 문제도 풀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퀴즈까지! 그야말로 30분을 꽉! 채운 (알토란) 같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

## 과학전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쉽지 않을 텐데, 진행의 노하우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생활과 접목해 과학을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진행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까... 진행자가 시청자와 똑같이, 시청자처럼 궁금해 하고, 새로운 걸 알았을 때는 시청자처럼 신기해하는 그래서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해가 쉬운 말을 주로 사용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곁들이는 등 가깝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 <과학향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즐겁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학창 시절 과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했던 성인들도, 이제 막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린 학생들에게도 <과학향기>가 친근한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혁 사이언스TV 과학향기PD



유학생 인턴기

#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본 YTN의 이미지는?**

**어예진** - 광고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단어 말씀드리면 “Oh~! YTN”이고 보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안경 쓴 정의의 여신상 유스티치아’ 같아요.

“오~!”는 제가 YTN 인턴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가 아니라 “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YTN의 이미지(또는 인지도)가 대단하다는 얘기고요. ‘안경 쓴 정의의 여신상’은 일단 눈가린 유스티치아와 달리 더 자세히 보고 멀리 보는 뉴스 채널이니 만큼 전문성이 있고 사실 그대로 객관성 있게 전달하는 성향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제인** - 한국에 있을 때 YTN이 어떤 채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이나 교민들에게는 YTN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뉴스 전문채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업무 중 관심 있었던 분야는?**

**어예진** - 아무래도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앵커 분들께 관심이 가고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고하시고 계신데 그러한 노고를 가장 멋지게 포장해서 증명해 내는 포지션이 바로 앵커의 能力이자 魅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힘 力’자를 쓰니까 아직 부족한 저도 勞力으로 키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활약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용기도 얻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YTN 통신원이 된다면?**

**어예진** - 지금.. 제게 먼저 제안해 주시는 건가요...? ^-----^ YTN 새겨진 마이크 커버만 미국 돌아 갈 때 주머니에 챙겨주세요~ ^^ 통신원으로 일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제인** - 해외방송팀에서 인턴하는 기간동안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신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원이 된다면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내에서도 YTN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YTN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어예진** - ‘돌발영상’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파장이 좀 크겠는데...? 괜찮나..?’ 하면서 보는 게 다 조마조마 했어요. 그런데 최근 인턴을 하면서 몇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돌발 영상’은 단지 재미있는 혹은

우스꽝스런 모습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뼈가 있고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물론 늘 희망적이고, ‘화냄’ 보단 ‘타이르고 가르침’의 내용이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돌발영상’은 우리들의 가려운 부분 또는 막힌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뚫어 주는 물파스나 면봉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요.

**인터십 과정 중 잊을수 없는 기억이나 경험?**

**어예진** - 하나하나가 모두 잊을 수 없어요. 대부분이 다 처음 했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기사’ 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직접 써 보면서는 ‘내가 아나운서, 앵커가 되겠다고 하면서 정작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사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입으로만 뻥뻥 하겠다고 그랬던 것인가..’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느낄 수 있던 감사한 경험이었고요. 또 제가 쓴 기사가 보도 되고(물론 썼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선배님들이 ‘거의 다’ 수정을 해주셨어요!) 한 번은 그 보도된 기사 중 두 개가 그날 YTN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을 때 정말 최고로 신났어요. 제 생각엔 YTN 인턴 자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경험이자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최제인** -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직접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녹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던 뉴스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던 점이었습니다. 앵커분들이 뉴스를 진행하시며 멘트를 마치신 후, 자료영상들이 나가는 사이사이로 틈틈이 기사를 확인하시고 멘트연습을 꼼꼼히 체크하시며 연습하시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무슨 소리라도 내지 않을까 해서 숨죽이고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또 해외방송팀에 있을 때 야외로 나가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며 잠깐 실제 촬영카메라 앞에서 간단히 리포팅을 하고 녹화된 제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인터십 과정에서 느낀 점**

**어예진** -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야만 ‘방송’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YTN 분들이 다들 너무 자상하고 유쾌하셔서 훌쩍 반해버렸습니다. 좋은 분들로 꼭 찬 회사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최제인** -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에 몸 담고 계신 선배님들, 또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해보신 인생의 선배님들 사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제 나이 때 공부 외로 더없이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YTN과 YTN 기자들을 본 느낌 ?**

**최제인** - 방송국이란 곳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일과 노력이 존재하는 일터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취재하러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확인하시며 또 다른, 새로운 기사를 신속하며 정확하고 간략하게 써내려 가시는 기자분들을 보는 것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기자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아무나 기자할 수 있는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소식 하나하나를 위해 취재에서건, 리포팅에서건, 기사작성에서건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YTN 가족들에게 한마디**

**어예진** - 너무나 너무나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했던 곳의 모든 분들께서 작은 것부터 큰 부분까지 저는 배워갑니다. 저의 꿈에 대해 지지해 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가까운 미래에 제가 어디에 있던 ‘선배~’ 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으로 대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 꼭꼭 잊지 않고 명심해서 더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투자하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하루 빨리 뒤를 잇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최제인** - 인턴ships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귀한 정보와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쉽지 않은 것임을 이번 인턴과정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YTN이 앞으로 더 높이 오르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려 한국의 자부심을 더 크게 넓히는 값진 나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인행> 박은정 홍보팀**

어예진(왼쪽)씨는 농구와 미식축구로 유명한 Michigan State University (MSU)에서 광고학(Advertising)을 전공하고 있고 꿈은 아나운서다. 최제인씨는 미국 뉴욕주 Syracuse University에서 public relations이 전공이다. 이들은 YTN에서의 인턴ships을 계획해 실천에 옮긴 적극적인 여학생이다. 남다른 마음가짐과 각오를 갖고 6주간의 인턴 생활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앵커



믿음직한  
새 얼굴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기상캐스터

1985. 4. 27  
서울대 산업공학과

첫 걸음을 때는 아이처럼  
설레고 조심스럽습니다.  
Best One보다 Only One,  
YTN의 명품기상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이혜민** 기상캐스터

1982. 8. 21  
중앙대 연극학과 졸업, 신문방송대학원

좋은 공연이 가슴을 울리듯,  
단순한 기상정보 전달이 아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상MC가 되겠습니다.



**최영아** 기상캐스터

1985. 12. 24  
외국어대 프랑스어과

일일드라마처럼 가깝게 중독성  
있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신입 기상캐스터 최영아와 함께  
하는 YTN 날씨의 일상 드라마.  
기대해주세요!^^



**황남희** 앵커

1980. 4. 10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과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YTN에서, 순발력과  
겸손함을 갖춘 뉴스 앵커로,  
믿음직한 새 얼굴, 또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박수연** 앵커

1983. 12. 6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  
YTN의 새로운 식구가 된  
박수연입니다.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일상 드라마,  
날씨. 기대해  
주세요!^^